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8 영국 테이트 모던 갤러리

버려진 화력발전소 개조 세계 3대 미술관으로

런던=정성필 EUI특파원
영국의 미술관을 얘기할 때 테이트 모던 미술관(Tate Modern Gallery)을 빼놓을 수 없다.

런던 최고 관광지로 탈바꿈
2000년 개관...현대 미술 寶庫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 유명

500만명을 넘겨서 루브르와 대영박물관에 이어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 템스강 남쪽 세인트 폴(Saint Paul) 성당의 건너편에 우뚝 솟은 골목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다.

미술관은 새 천년에 맞춰 추진된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관했다. 프로젝트의 주안점이 템스강 남쪽 지역의 활성화였는데 테이트 모던 미술관, 미술관과 이어진 보행자 전용 다리 밀레니엄 브리지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 됐다.

미술관은 기존 발전소의 지붕을 걷어내고 유리 지붕을 설치해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구조를 택했다. 20세기 초 야수파에서 20세기 말 팝아트까지 1900년 이후 대작들이 주로 전시돼 있으며, 영국의 대부분 미술관·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없다.

실탕 정제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 헨리 테이트(Henry Tate·1819~1899) 경은 영국 국립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가 취급하지 않은 회화나 조각 등 미술작품을 대중에게 전시하기 위해 1889년 런던에 갤러리를 열고 '테이트 갤러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러리와 함께 근대 이전 영국미술의 가장 중요한 갤러리로 자리매김했다.

테이트 재단은 런던의 두 미술관 외에 특별전시회를 주로 여는 영국 북서쪽 리버풀의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미술학교가 있는 영국 남서쪽 콘웰(Conwell)지역의 테이트 세인트 아이비스(Tate St Ives) 등을 운영하고 있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상설 전시는 작품의 제작연도나 작가별이 아닌 나름대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묶여 있다. 미술관 3층과 5층에서 '구체적인 몸짓(Material Gestures)', '시와 꿈(Poetry and Dream)', '끈임없는 변화(States of Flux)' 등 6개의 주제로 나눠 상설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미술관은 '국립'이 아닌 '비정부공공기관(NDPB·Non-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은 아니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가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1900년 이후 대작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2008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 한 해 동안 미술관 수입 7천961만 파운드(약 1천583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넓은 공간이 특징인 테이트 모던 미술관 1층 홀에서 관람객들이 기부함에 돈을 넣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술관 곳곳에 기부함이 설치돼 있다.

억원) 중 40% 가량의 3천167만 파운드(약 630억원)가 정부 보조금이다. 전체 지출의 62%인 5천90만 파운드(약 1천12억원)를 교육 등 공공사업에 사용했다.

영국 미술관들의 특징 중 하나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도 잘 구현돼 있다. 단순히 초·중·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일회성 강의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감상하고, 느낀 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키레이터와 함께 전시장 안에서 진행되는 토론이나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하는 미술관 투어는 기본이고, 작가 등을 초대해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 음악회, 퍼포먼스, 영화 상영, 가족 및 교사 프로그램 등이 수시로 진행된다. 미술관 1층에 마련된 서점도 볼거리다.

미술관 1층에 마련된 서점도 볼거리다. 미술관 내 출판부에서 펴낸 다양한 미술 관련 책은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서 서점이 아닌 도서관에 손꼽힐 만큼의 책을 준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된 책들이 눈에 띈다. 전시장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쿼즈패키지나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접어서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토론 공간 확충 복합 문화공간 변신

테이트 모던 확장 계획

테이트 모던 미술관(Tate Modern Gallery)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맞춰 대대적인 미술관 확장계획 'Transforming Tate Modern' (조감도)을 발표한 것. 런던시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 확장에 700만 파운드(약 135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된 미술관 개관(2000년)을 위해 건물 리모델링을 지휘했던 스위스 출신 건축가 헤르조그와 드 무롱이 다시 참여한다.

목적은 소장품의 전시공간을 늘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관람객과 이용자 수에 비해 좁은 교육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다. 미술관의 기본인 전시기능을 뛰어넘어 세미나와 토론 등이 수시로 이뤄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것이다.



템스강 반대편인 미술관 남쪽 광장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건축물을 건설하고, 이전 미술관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새 계획을 통해 확보되는 공간은 5천㎡ 이상이 될 전망이다.



테이트 모던 미술관 관람객들이 3층 상설전시장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미술관 측은 20세기 미술의 키워드를 정해 6개 전시장에서 주제별로 대작들을 전시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KIN (주)국민법률경제대 featuring a large table of legal and real estate service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